

“기업 존중하고, 그들의 투자 유치해야만 지역발전 가능”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



산업혁명 이전 유럽 경제를 이끈 것은 길드(guild)였다. 기술을 가진 장인, 상권을 가진 상인들이 조합을 조직해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이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점차 커지면서 도시로부터 자치권을 받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 전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기술은 도제(徒弟)식으로 전수되었는데, 길드가 그 수를 제한하거나 교육 기간을 정했고, 도시 내외의 상품 가격, 영업 시간 등을 조정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다. 고대 로마에서 유사한 조직들이 있었지만, 9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길드는 11세기부터 독일, 프랑스, 영국 등으로 퍼져나가 중세 유럽 경제의 상징이 되었다.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 간 무역이 성행하면서 길드의 규모도 커지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현재 유럽 각 도시의 핵심 산업이 결정된 것도 이 시기였다. 벨기에 헨트, 이탈리아 피렌체 등에서 모직·방직산업이 발달하고, 주로 현물 화폐로 거래하면서 화폐 경제도 발전시켰다. 중세 말 중상주의로 인한 공장제 산업과 산업혁명이 결합하면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길드는 역

사 속으로 사라졌다. 다만 그 유산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엄격한 생산 통제와 품질 관리로 각 지역마다 특산품이 생겨났고, 도제식 교육을 통해 이어진 공예 기술의 진화는 명품의 기반이 되었다. 상표, 특허, 저작권 역시 길드 시대의 산물이다.

이후 자본주의의 더없는 발전과 20세기 후반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세계 무대를 약육강식의 장

광주·전남 회원 기업만 2632개... 정부·지자체 친기업 정책 필요

지역기업 경쟁력 높이기 절실... 자금·기술·제품 판촉 지원에 최선

으로 만들어버렸다. 전문학적인 자본, 첨단기술력, 세계적 네트워크 등을 가진 거대 기업들은 조그만 이익까지도 쓸어담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몸집이 작고 연약해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경제주체들은 유럽 중세의 길드처럼 연대·협력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나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현 중소기업중앙회)가 설립된 것이 1962년 5월이며, 광주전남본부도 비슷한 시기 조직되었다. 62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여건은 나아지기 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지위 향상,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수의 99%, 종사자 수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소중한 가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생존, 나아가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법·제도적 보완, 정부·지자체의 지원, 자체 경쟁력 향상, 안정적인 판로 개척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회와 광주전남본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모두 50개 조

합에 2632개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다. 아스콘, 가구, 식자재, 기계공업, 슈퍼마켓, 인쇄, 사진앨범 등 늘상 우리가 친근하게 여겨온 것들이다. 이 '대식구'를 이끌고 있는 광주전남회장은 임경준(66) (주)해솔아스콘 대표가 맡고 있다.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상경해 서울 굴지의 건설업체에서 20·30대 중반을 보낸 뒤 아스콘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1996년 7월 창업했다. 경험과 노하우를 이미 갖고 있던 그는 10년만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뒤 2005년부터 아스콘조합, 중소기업중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20년간 '모두'를 위한 정책을 맡고 있다.

2015년까지 11년간 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를 지냈고, 2017년 3월 제7대 광주전남 중소기업회장에 오른 뒤 잠시 쉬었다가 2021년부터 제9대에 이어 지난 2023년 3월 제10대 회장에 선임됐다. 이외에도 전남건설협회 대표회장,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제)광주테크노파크 이사 등을 수행하면서 2018년 산업포장 수상, 2022년 조달청장 표창 등을 받았다. 분야도, 규모도 각기 다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오랜 기간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중소기업회장단 협

의회장까지 직함에 추가되면서 서울을 오가며 중앙과 지방의 가고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

임 회장에게 연약한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자체의 대책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창업 배경이 상당히 이채롭다.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서울의 유명 건설업체에 들어갔다. 1980년대 중반이어서 지역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그 업체는 도로 등 기반시설, 아파트 공급, 전신주 및 철도 침목 설치까지 건축·토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했었다. 그 중 하나가 아스콘(석유 정제 부산물과 모래, 자갈 등을 섞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급성장하면서 전국에 아스콘 공장을 두고 공급했었다. 그런데 이 아스콘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 되면서 대기업이 할 수 없게 되었다. 사업체를 매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회사 대표가 광주·전남의 사업장을 당시 소장 하고 있던 내게 맡겼다. 그냥 계약금만 주고 운영하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 천천히 돈을 벌며 완납하고 완전히 내 회사로 만들었다.

-상당한 특혜인데.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기차 양산이후 이직률 대폭 줄었다

올 5.8%로 전년보다 1.6% P ↓

임금 상승·주거안정비 등 영향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올해 이직률 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GGM 이직률은 전년(7.4%) 대비 1.6%포인트 감소했는데, 캐스퍼 EV의 국내외 판매호조에 힘입은 임금 상승과 매달 지급되는 주거안정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GGM에 따르면 올해 상시근로자 620명 가운데 11월 말까지 이직한 인원은 36명(5.8%)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일자리 이동통

계 결과' 국내 이직률은 16%로 GGM의 이직률은 대기업(10%)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특히 EV 양산이 시작된 7월 이후 회사를 떠난 직원은 10명(1.6%)에 불과했다.

GGM은 "올해 GGM의 생산 대수는 지난해 3분기 대비 14% 늘어나면서 근로 시간이 증가, 직원 평균 급여는 18%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 잡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캐스퍼 EV는 전기차 '캐즘'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출시 이후 3개월간 누적 판매량 5000대를 돌파했다. 또 지난 10월 첫 수출을 시작한 캐스퍼 EV는 11월 말까지 23개국에 4470대가 판매됐다.

GGM은 또 광주시의 '사회적 임금' 정책도 이직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광주시는 올 7월부터 주거지원비를 월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과 건강 검진비 및 문화바우처 상품권 지급, 통근버스 운행, 시내버스노선 선을 신설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GGM 관계자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광주에 일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 대 협력으로 탄생한 GGM은 '10수'만에 합격한 직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회사 설립의 근간이자 존속의 기반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승연 대통령실 비서관 광주상의 순회 간담회

광주상공회의소는 1일 "지난 28일 정승연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이 참석해 '기업인 애로 순회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과 임원진, 지역 상공인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한상원 회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매년 1만여 명의 광주·전남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등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정승연 정무2비서관은 "복합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이날 지역 발전 및 기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도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실에 전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 MZ 쇼핑 성지 부상...리뉴얼 후 매출 '쑥'

20~30대 매출 신장률 73%

광주신세계가 1일 "지난 10월 1일 리뉴얼 오픈한 '플레이 스팟' 전체 매출이 29% 이상 신장하는 등 트렌드를 이끄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플레이 스팟은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브랜드를 신규 입점시키는 등 개인 고객부터 가족단위 고객까지 이용가능한 장소로, 전체 96개 입점 브랜드 중 35개 브랜드를 신규 브랜드로 채우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플레이 스팟 리뉴얼 이후 한달 동안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9% 이상 신장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30대의 매출 신장률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 고객 비중이 75%로 높았다. 여성 고객 중에서는 40대가 2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본인 또는 자식과 함께 플레이 스팟을 방문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북구와 서구 고객 비중이 높았고, 전남에서는 나주, 목포, 순천 등에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레이 스팟이 문을 연 뒤 신규 고객이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매출 분석 결과 플레이 스팟 리뉴얼 이후 한달 동안 기존에 구매 이력이

없던 신규 고객의 매출이 전년보다 34%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신세계는 이같은 매출 신장 등 성장세의 요인으로 호남지역 최초로 선보인 '살로몬' 등 차별화된 브랜드의 입점 효과를 꼽았다. 서울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신규 브랜드 입점을 통해 SNS 등을 통해 화제를 모아, 오픈된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이 밖에도 게임랜드와 위글위글의 아케이드형

오락실 콘셉트 매장, 스타벅스 카페, 시코르 등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공간들도 주요했다고 자평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플레이 스팟이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 혁신으로 플레이 스팟이 MZ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내년 지역 상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광주은행이 지난달 29일 '2025년 광주·전남 특화 중소기업대출 운용',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고객니즈를 반영한 영업현장 소통영업 강화' 등 지역밀착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광주은행 노동조합의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투쟁이 경영진과 노조위원장간의 공동교섭을 통해 마무리 된 것을 계기로, 광주은행이 광주·전남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과 상생하는 지원 방안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방안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역상생 우대금리 확대를 통해 지역 소재 우량중소기업 대출 특화 상품을 운용하고, 지역보증재단 특별보증 연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채대출 신규 취급 확대를 내세웠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겠다는 복안이다. 또 고객들의 수요와 영업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금리 정책 마련,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가 지난 28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4년 바이오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바이오산업 진흥 및 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바이오센터에 선정돼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메디헬스케어센터는 올해 산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인 '골대체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사업' 선정되었으며, 치과·정형외과·안과 및 기능성화장품 사업까지 기업 지원을 위해 10개가 넘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 당시 2개사(매출액 2억원, 고용인원 22명)에 불과했던 관련 기업이 2023년말 기준 500개사(매출 1조3206억원, 고용 4710명)로 급격히 성장해갔으며,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을 받고 있다.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K-바이오에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경쟁력을 가지는 우리 주력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 바이오 수출

로도복권 (제 1148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6	13	15	16	22	3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073,332,308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6,311,547	97
3	5개 숫자일치					1,457,567	3,082
4	4개 숫자일치					50,000	154,963
5	3개 숫자일치					5,000	2,581,682

포스코 광양 율촌산단에 리튬솔루션 생산시설

한덕수 총리 등 참석 준공식

전기차(EV)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이 29일 광양 율촌 1산단에서 준공식(사진)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9일 한덕

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솔루션 종합 생산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설 완공으로 호주에서 채굴된 리튬 함유 광석인 스포듀민을 광양항을 통해 들여와 연간 전기차 약100만 대 분량인 4만 3000 t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게 된다. 포스코는 해외 자원을 확보해 전기차 배터

리용 수산화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전남의 리튬 생산은 국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동호안 규제 해소, 기회발전특구 지정처럼 포스코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광양만권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화단지화 미래첨단소재 산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